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4, No. 133, pp.359-397  
<https://doi.org/10.29212/mh.2024..133.359>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 주월한국군 대부대 군사작전의 특징과 의의

- 1967년 오작교 작전과 홍길동 작전을 중심으로\* -

심호섭 |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부교수

- 목 차
1. 머리말
  2. 1967년 연합전역계획과 오작교 작전과 홍길동 작전의 배경
  3. 오작교 작전과 홍길동 작전의 형태: 소탕작전
  4. 미 관찰단의 평가로 본 한국군 대부대 작전: 소부대 작전 중심의 방식
  5. 맺음말

**초 록** 이 논문은 베트남 전쟁에서 주월한국군이 수행한 대부모 군사작전의 특징과 의의를 도출한다. 특히 1967년 오작교 작전과 홍길동 작전을 분석하여, 한국군의 대부대 군사작전이 미군의 탐색격멸 작전과 달리 잔적 소탕과 지역 확보에 중점을 둔 소탕 작전이었음을 밝힌다.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 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3S1A5A2A01076894)

이와 동시에 한국군은 미 관찰단의 평가와 같이 소규모 제대의 수색, 정찰, 매복 등 소부대 작전을 통해 대부대 군사작전에서도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한국식 소탕작전으로 부를 수 있는 이러한 한국군의 독특한 대부대 군사작전은 베트남 전쟁의 전략 목표인 평정에 기여함과 동시에, 최소한의 피해로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려는 한국군 내부 목표를 충족시키며 한국군의 전쟁 수행 과정에서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지닌다.

주제어 : 베트남 전쟁, 주월한국군, 대규모 군사작전, 오작교 작전, 홍길동 작전, 탐색격멸, 소탕, 확보, 평정

(원고투고일 : 2024. 10. 10., 심사수정일 : 2024. 11. 14., 게재확정일 : 2024. 11. 29.)

## 1. 머리말

베트남 전쟁에서 남베트남 편에 참전한 동맹군<sup>1)</sup>의 전략 목표는 남베트남 정부 기관이 북베트남과 베트콩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확보하고 통제하는 평정(pacification)의 달성에 있었다.<sup>2)</sup>

중국의 개입과 같은 전쟁의 확전을 우려했던 미국은 북위 17도선을 넘어 북베트남을 직접 공격하기보다는, 처음부터 남베트남 안에서 정부의 전복을 막기 위한 방어전을 수행하였다. 또한 북베트남 지역에 대한 폭격에 더해 남베트남에 지상군을 투입함으로써 북베트남 정부를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 전쟁을 종결하고자 했다. 그러나 북베트남과 베트콩은 굴복하지 않고 반란전을 지속했으며, 이에 따라 전쟁은 장기화되고 소모전의 양상을 띠게 되었다. 결국, 베트남 전쟁은 북베트남과 남베트남 간의 전면적 정규전이 아닌, 남베트남 내에서 남베트남군과 미국을 위시

1) 베트남 전쟁에서 남베트남과 미국 편에 참전한 국가는 지상군 파병 병력 순으로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태국, 필리핀, 뉴질랜드, 타이완 순이다. 그러나 6·25전쟁과 달리 베트남 전쟁에서는 연합사령부가 구성되지 않았으므로 이들 군대를 연합군(Combined Forces)으로 부르기는 부적절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남베트남을 지원한 자유 진영의 군대를 당시 사용된 호칭인 자유세계군(Free World Military Forces) 또는 동맹군(Allied Forces) 중에서 동맹군으로 지칭한다. 한국군을 포함한 동맹군의 활동에 대해서는 Stanley Robert Lasen and James Lawton Collins, *Allied Participation in Vietnam* (Washington DC: Department of the Army, 1975)이 자세하다.

2) "Military Assistance Command Vietnam, and Joint General Staff, Republic of Vietnam Armed Forces, Combined Campaign Plan 1967," Folder 14, Box 5, Larry Berman Collection, The Vietnam Center & Sam Johnson Vietnam Archive(VNCA), Texas Tech University, Lubbock, Texas; "Military Participation in Revolutionary Development," November 1966, Folder 9, Box 4, Douglas Pike Collection, VNCA.

한 동맹군이 북베트남 정규군과 베트콩과의 대반란전(COIN, Counter-insurgency)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베트남의 다양한 지형적 특성은 북베트남군과 베트콩이 효과적으로 반란전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베트남은 동서로 좁고 남북으로 길게 이어진 독특한 지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sup>3)</sup>, 지역별로 다양한 지형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남베트남에 한정해서 살펴보면, 동부는 긴 해안선을 따라 펼쳐져 있고, 서쪽에는 험준한 서부 고원이 자리하고 있다. 또한, 동남부의 메콩강 삼각주 지역은 정글과 습지로 이루어져 있어 접근과 통제가 어려운 환경을 제공한다. 이러한 지리적 구조와 지형적 특징을 활용하여, 베트콩은 서쪽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우회하는 험준한 산악 지형에 구축된 호치민 루트를 통해 북베트남으로부터 병력과 장비를 지속적으로 지원받아 대반란전을 전개했다. 그들은 대규모 병력 대신 소규모 부대로 분산 활동하며, 치고 빠지는 게릴라 전술을 주된 전략으로 삼았다. 또한 민간인으로 위장해 마을에 은거하며 농촌을 기반으로 혁명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남베트남 정부의 통제력을 약화시키고자 했다.

이는 베트남 전쟁을 군사적으로 독특한 양상의 전쟁으로 만들었다. 미국과 한국이 경험했던 6·25전쟁은 군대 간의 협조된 기동과 작전을 통해 전선이 형성되고 이동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베트남 전쟁에서는 각 부대가 전술책임구역(TAOR, Tactical Area of Responsibility)이나 작전 지역(AO, Area of Operation)과 같은 특정 구역을 할당받아, 전선 없이 분산된 형태로 작전을 수행했다. 남베트남 전체는 북쪽에서부터 I, II, III, IV 군단 전술책임구역으로 나뉘었으며, 남베트남 II 군단과 미 I 지역군과 합

3) 국토의 남북 직선 길이가 1,650km, 해안선 길이는 3,260km에 달하는 한편, 국토의 허리에 해당하는 중부의 폭은 가장 좁은 곳이 48km에 불과하다. 최용호, 『한권으로 읽는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3-4쪽.

계 중부의 II 군단 전술책임구역을 담당하게 된 한국군은 구역 내에서도 주로 동부 해안 지역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 지역에서 한국군은 미군과 남베트남군과 함께 작전을 수행했지만, 연합사령부는 구성되지 않았다. 대신 각 군이 독립적인 병렬 지휘체계를 유지하며 서로 협조하는 형태로 연합작전을 수행했다.<sup>4)</sup>

결국, 베트남 전쟁은 각 부대가 자신에게 할당된 지역을 평정하며 평정 지역을 확장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작전 방식은 베트남 전쟁이 상대국의 영토 점령이나 군대의 격멸을 추구하는 기존의 정규전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국가의 평정 달성을 목표로 한 전쟁이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남베트남군과 동맹군은 전쟁의 전략적 목표인 남베트남 평정을 달성하기 위해 군사작전과 민사작전을 병행하여 수행했다. 당시 군사작전은 크게 탐색격멸(Search and Destroy), 소탕(Clearing), 확보(Securing)의 세 가지 형태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작전 형태는 북베트남 정규군의 정규적 위협과 베트콩의 비정규적 위협을 모두 고려한 단계적 접근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첫 번째 단계에서는 ‘탐색격멸’을 통해 북베트남군 또는 베트콩 주력을 찾아 섬멸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남아 있는 적을 ‘소탕’하며, 마지막 단계에서는 해당 지역을 ‘확보’하여 지역을 평정하는 방식이었다.

또한 베트남 전쟁에서의 군사작전은 그 규모에 따라 대대급 이상의 제대가 수행하는 ‘대부대 작전’과 중대급 이하의 ‘소부대 작전’으로 구분되었다. 대부대 작전은 주로 미군이 수행한 탐색

4) 한국을 제외한 동맹군 5개국의 전투부대는 미군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았다. 베트남 전쟁에서 동맹군의 지휘구조와 한국군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할 것. Hosub Shim, “Journey to Equality: The Establishm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Republic of Korea Forces in the Vietnam War,” *The Journal of American-East Asian Relations*, Vol. 29 (2022): 391-422.

격멸 작전의 형태를 띠었으며, 헬리콥터를 활용한 보병, 포병, 공중전력의 지원을 통해 화력과 기동력에 중점을 둔 정규전적 성격을 가졌다. 소부대 작전은 주로 분대 및 소대 단위의 수색 및 매복 작전으로 이루어졌고, 미군은 이를 탐색격멸 작전을 보조하는 역할로 수행했다. 따라서 군사작전을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성격으로 구분한다면, 탐색격멸은 정규전에 가까운 작전이었으며, 소탕과 확보는 비정규전적 성격의 평정작전으로 볼 수 있다.

주월한국군의 군사작전은 주로 한국군 자체의 정치·군사적 이유와 각국 군대별 역할 분담에 의해 결정되었다. 규모에 있어서 한국군의 군사작전은 아래의 <표 1>과 같이 주로 소부대 작전 위주로 진행되었다. 한국군은 사상자를 최소화하라는 정부 지침에 따라, 최소 희생으로 최대 성과를 달성하는 것을 내부 목표로 삼았다.<sup>5)</sup>

이를 위해 한국군은 전술책임지역(TAOR)의 평정과 평정 지역 확대를 전쟁 수행의 기본 전략으로 설정했다. 한국군의 군사작전은 “분리-섬멸-지역 확대”라는 자체적인 평정 전략에 기반을 두었으며, 특히 베트남과 주민의 분리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중대 규모의 기지를 해당 책임 지역에 배치하고, 그 기지를 중심으로 수색, 정찰, 매복과 같은 소부대 전투를 전개했다.

<표 1> 주월한국군 군사작전 현황

군사작전 규모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합계
소부대 작전 (중대급 이하)	2,206	38,722	73,448	96,907	89,002	102,248	130,294	40,831	573,658
대부대 작전 (대대급 이상)	15	63	97	170	216	302	258	58	1,179
합계	2,221	38,785	73,545	97,077	89,218	102,550	130,552	40,889	574,837

\* 출처: 주월한국군사령부, 『월남전 종합연구』 (사이공, 주월한국군사령부, 1974), 391쪽.

5) Ibid., pp. 402-403.

다만 압도적인 소부대 작전의 횟수에도 불구하고, 한국군은 총 1,000여 회가 넘는 무시할 수 없는 횟수의 대부대 작전을 수행했다. 또한 한국군은 탐색격멸과 같은 정규전 성격의 대부대 작전을 통해 남베트남 평정에 기여하고 있음을 전쟁 기간 동안 강조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군의 대부대 작전을 어떻게 특징지을 수 있을지 밝히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군은 왜 1967년에 본격적인 대부대 군사작전을 실시했던 것인가? 한국군의 대부대 군사작전은 과연 베트남 격멸을 목표로 한 탐색격멸 작전으로 분류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면 동맹군의 기준과는 다른 독자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었는가? 본 논문에서는 1967년의 오작교 작전과 홍길동 작전이라는 주월한국군의 대표적인 대부대 군사작전을 분석하여 그 특징을 규명한다.

## 2. 1967년 연합전역계획과 오작교 작전과 홍길동 작전의 배경

남베트남군과 동맹군 내 군사작전 임무 분담은 1967년 연합전역 계획을 통해 공식화되었다. 이 해는 미국의 베트남 전쟁 수행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으로 볼 수 있다. MACV(Military Assistance Command, Vietnam, 베트남 군사원조사령부 또는 주월 미군 사령부) 사령관 웨스트모어랜드 대장은 “1966년 말의 성과를 바탕으로 1967년에는 전과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sup>6)</sup>

6) Ulysses S. Grant Sharp and William C. Westmoreland, *Report on the War in Vietnam, as of 30 June 1968*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9), p. 131.

1966년 말, 동맹군의 전력은 크게 증강되었다. 미군 병력은 48만 6천 명으로 증가했으며, 한국군 역시 기존 수도사단(-)과 해병 여단 외에 수도사단 1개 연대(26연대)와 9사단이 증파되어 총병력은 5만여 명에 이르렀다. 1966년 말 미군은 그동안 증강된 동맹군의 활발한 군사 활동으로 인해 북베트남군과 베트콩이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태세로 전환한 것으로 판단했다.<sup>7)</sup>

미군은 남베트남 평정을 위한 소모전을 수행하면서도, 1967년 공세적인 대규모 군사작전을 통해 결정적 승리를 기대했다. 이러한 대규모 공세 작전은 주로 북베트남 정규군과 베트콩을 격멸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동시에 평정을 위해 지역을 확보하고 안정화하는 민사작전과 같은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방법도 병행되었다.<sup>8)</sup> 이에 따라 남베트남군과 동맹군은 공세적인 대규모 작전과 평정작전 위주의 소규모 작전의 균형을 고려하여 군사작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국 군대별로 주 임무를 설정했다.

1967년 연합전역계획은 각국 군대별로 다음과 같은 임무를 규정했다.

베트남 공화국군(RVNAF), 미군 및 자유세계군사원조군(FWMA)은 본 작전의 목표와 할당된 임무에 따라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베트남 공화국군은 혁명적 개발[평정]을 지원하는 주요 임무를 맡으며, 국가 우선 지역과 기타 중요한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활동하고 정부 중심지를 방어하며, 특히 쌀과 소금을 포함한 국가 자원을 보호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 미군 및 자유세계군사원조군은 베트콩 및 북베트남군(NVA) 주력 부대, 기지 지역, 자원을 파괴하거나 적을 인구가 적고 식량이 부족한 지역으로 몰아내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며, 이들 기지 지역을 확보

7) "Summary of USMACV News Events, 1966," 14 January 1967, Folder 1, Box 0, Bud Harton Collection, VNCA.

8) Sharp and Westmoreland, *Ibid.*, pp. 132-133.

하고 그 주변을 정리할 것이다. 또한, 지시된 바에 따라 국가 자원의 보호와 통제에 협력할 것이다.<sup>9)</sup>

이처럼 연합전역계획은 남베트남군은 지역 확보와 안정화를 목표로 한 평정작전에 집중하는 한편, 미군과 한국군을 포함한 동맹군은 탐색격멸을 목표로 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수행할 것을 결정했다. 이러한 각국 군대별 군사작전 임무의 구분은 1965년 초 미 지상군이 남베트남에 도착한 이후 지속되었으나, 1966년 말 전황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전략 단계로 진입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1967년 초 공식적으로 재정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967년도 한국군의 임무는 연합전역계획에 따라 “베트콩 및 월맹군을 격멸하고 월남 전역에 걸쳐 월남 정부 통제 지역 확장과 월남 국가 혁명 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었다.<sup>10)</sup> 그동안 한국군은 대규모 군사작전보다는 지역 확보와 안정을 목표로 한 평정작전에 주력해왔으나, 이를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로 인식했던 미군은 한국군이 자신들의 전술책임지역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역에서 베트콩을 적극적으로 격멸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한국군은 미군과 같은 수준의 화력과 기동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중대전술기지 운용과 수색, 정찰, 매복과 같은 소부대 중심의 작전을 수행해왔다고 해명했다.<sup>11)</sup>

1966년 11월 이후부터 1967년 1월 10일 연합전역계획이 최종 승인되고 배부되기 전까지, 한국군과 미군, 그리고 남베트남군

9) “Military Assistance Command Vietnam, and Joint General Staff, Republic of Vietnam Armed Forces, Combined Campaign Plan 1967,” VNCA.

10) 주월사령부, 「1966년도 주월한국군 작전개요 및 1967년도 전역계획보고서」, HB02338. HB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사료 관리 번호임.

11) Shim, *Ibid.*, pp. 412-415; George L. MacGarrigle, *Combat Operations: Taking the Offensive, October 1966 to October 1967* (Washington, DC: Center of Military History, U.S. Army, 1998), p. 192.

간에 세 차례에 걸쳐 실무진 회의가 열렸다. 이 과정에서 한국군은 해당 내용을 반대하지 않고 수용했다.<sup>12)</sup> 왜 이 시기에 한국군은 미군의 요구를 받아들였을까? 한국군이 미군의 대부대 탐색격멸 작전 요구를 수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1967년에 이르러 한국군에게는 미군의 요구를 거절할 명분이 부족해졌다. 한국군은 이전부터 미군으로부터 군사작전에 있어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특히 탐색격멸과 같은 대규모의 공세적 작전 수행에 대한 압박이 강했다.<sup>13)</sup> 그러다가 1966년 수도사단 1개 연대(26연대)와 9사단 병력이 증강되었으며, 1966년 말에는 9사단이 현지 적응을 마치면서 한국군은 더 이상 병력이나 준비 부족을 이유로 소극적 태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둘째, 대부대 작전 수행을 한국군 파병의 명분을 쌓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했다. 한국군은 미군의 대부대 군사작전 요청을 수용함으로써, 1966년 독고 전투 당시처럼 미군이 한국군을 캄보디아 국경 근처에서 북베트남 정규군과 직접 대치하는 작전으로 내모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전략적 계산도 가지고 있었다.<sup>14)</sup> 더 근본적으로, 한국군이 표면적으로는 독자적인 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전 지원, 군수, 해외근무수당 등 전쟁 수행에 필요한 대부분을 미군에 의존하고 있었기에, 미군과 원만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한국군은 그동안 소부대 작전을 통해 지역 평정에서 효과적임을 강조해왔으나, 이제는 군단급 부대로 성장하여 동맹군 내에서

12) "Operational Report for Quarterly Period Ending 31 January 1967," 11 March 1967, AD390962, Defense Technical Information Center (DTIC).

13) Shim, Ibid., pp. 412-414.

14) 심호섭, 「주월한국군의 중대전술기지 운용이 지닌 이상과 현실」, 『군사』 120호, 2021, 94-95쪽.

미군 다음으로 큰 규모를 갖추게 되었고, 특히, 한국군 2개 사단이 배치된 II 군단 지역에서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상황이 되었던 것이다.

주월한국군 사령관 채명신 중장은 1967년도의 대부대 군사작전 실행에 대한 여러 이유를 언급하면서, 한국군은 연합전역계획을 단순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미군이 10개월 동안 평정에 실패했던 지역에서 좋은 결과를 달성함으로써 한국군의 능력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고자 했다고 밝혔다.<sup>15)</sup> 당시 한국군이 작전을 전개할 푸옌성과 광범위한 고보이 평야 지역은 베트남 중동부의 전략적 요충지임에도 여전히 베트콩에 의해 지배되는 지역으로 평가되었다. 한국군 2개 사단으로는 성공이 어려울 거라는 미군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국군은 이 지역에서의 대부대 군사작전을 성공시킴으로써 한국군이 전술책임지역 밖에서도 효과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함을 증명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한국군이 이 전쟁에 꼭 필요한 존재임을 부각하고자 한 것이다. 다행히 박정희 대통령이 1967년 5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여 연임에 성공하면서, 사상자 발생 등으로 인한 국내 정치적 부담이 이전에 비해 줄어들었다.

셋째, 한국군은 대부대 군사작전 수행을 피할 수 없다면 이를 통해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한의 성과, 즉 충분한 이익을 달성하고자 했다. 미군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한국군은 전쟁 기여라는 명분을 확보하는 동시에 실질적 이익을 취하고자 했다. 먼저, 군사적 측면에서 한국군에게는 수도사단과 9사단 간의 연결이 필수적이었다. 당시 두 사단의 전술책임구역은 분리되어 있었고, 특히 9사단은 좁고 긴 전술책임지역을 점령하고 있어 측

15) 채명신 증언, 1969년 8월 1일, 1969년 8월 21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증언을 통해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1권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67, 91쪽.

면이 적에게 노출된 상태였다. 따라서 대부대 작전을 통해 푸이 호아 지역을 확보하면 두 사단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9사단이 처한 군사적 문제 또한 해결될 수 있었다.<sup>16)</sup> 이에 더해, 한국군은 한국 정부의 의도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해당 작전 지역은 한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핵심적인 위치였다. 이 지역은 식량 공급원일 뿐만 아니라, 군사 및 교통의 주요 시설을 갖춘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었다. 채명신은 국가 이익 실현과 외화 획득을 목적으로 대부대 작전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철도, 항만 등 기간 시설이 잘 갖춰진 중부 베트남의 중요 지역에 한국 민간 기업들이 진출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sup>17)</sup>

채명신 중장은 1966년 중후반 9사단이 베트남에 도착한 초기부터 이 지역에 대한 작전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대부대 탐색격멸 작전으로 한국군의 임무를 규정한 연합전역계획에 반대하지 않았다. 그는 연합전역계획이 한국군의 전쟁 수행과 행동을 실질적으로 규율하기보다는, 각국 군대 간의 ‘연합’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공식 문서로 여겼다. 대부대 작전의 수행 방식에 있어서도 반드시 미군식 탐색격멸을 따를 필요는 없으며, 최소한의 희생으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하여 한국군이 베트남 전쟁에서 주요 의사결정자 중 하나로서 상징적 의미를 부여받기 위해, 연합전역계획 문서에 자신의 공식 서명만 요구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1967년의 한국군의 대부대 군사작전 개시는 처음부터 한국군의 정치적 차원의 고려가 깊숙이 반영된 결과였다.

16) 한민석(주월 한국군 사령부 작전참모) 증언, 1969년 8월, 위의 책, 125쪽.

17) 채명신 증언, 1969년 8월 21일, 위의 책, 91쪽.

### 3. 오작교 작전과 홍길동 작전의 형태: 소탕작전

1967년 3월 8일, 주월한국군은 오작교 작전을 개시했다. 이 작전의 목표는 수도사단과 9사단을 연결하고, 동해안을 따라 남북으로 이어지는 1번 도로를 개통시키며, 궁극적으로 두 사단 사이에 위치한 푸옌성의 중심인 푸이호아 지역을 평정하는 데 있었다. 작전명 ‘오작교(烏鵲橋)’는 두 사단을 연결하려는 의도를 상징적으로 담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주월사령부에서는 작전을 두 단계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단계인 오작교 I은 각 사단의 전술책임지역을 확장하고, 수도사단과 9사단을 연결하는 것이 주요 목표였다.<sup>18)</sup> 이와 동시에 한국군은 베트남 격멸을 목표로 내세우며, 수도사단에서 3개 대대, 9사단에서 2개 대대를 동원하여 총 5개의 대대를 투입한 군단급 규모의 탐색격멸 작전을 수행하려 했다.<sup>19)</sup> 베트남을 격멸하고 두 사단의 연결을 달성한 이후에는 확장된 지역을 확보하고 안정화하기 위해 오작교 작전의 두 번째 단계인 오작교 II가 실시된다.<sup>20)</sup> 여기서 한국군은 “전술기지 공사와 더불어 지역 내의 잔적 소탕을 위한 매복전, 그리고 민사심리전 활동과 주월 정부의 평정계획을 지원하는 수복작전”을 수행할 계획이었다.<sup>21)</sup> 결국 작전의 두 단계를 종합적으로 볼 때, 오작교 작전은 처음부터 탐색격멸, 소탕, 확

18) 수도사단, 『전투상보 제 58호: 오작교 1호』, 1967, HB00105; 9사단, 『전투상보 제 35호: 오작교 작전』, 1967, HB00010.

19) 군단급 작전이라고 해서 군단 전체가 동원된 것은 아니었다. 군단급 작전의 의미는 주월사령관 또는 야전사령관이 주관하는 작전을 통칭한다. 마찬가지로 사단급 작전은 사단장이 주관한 작전이었다.

20) 국방부, 『파월한국군전사』(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1981년), 2권, 397쪽.

21) 위의 책, 514쪽.

보의 군사작전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전술책임지역을 확장하고 평정을 이루는 데 목표를 둔 작전이었다.

4월 18일 오전 10시 30분, 수도사단장 유병현 소장과 9사단장 이소동 소장이 나눈 ‘극적인’ 악수는 한국군이 오작교 I의 목표였던 두 사단의 연결을 성공적으로 달성했음을 상징한다.<sup>22)</sup> 하지만 오작교 작전의 첫 번째 단계에서 한국군은 탐색격멸 작전의 주된 목표인 베트콩 주력 부대의 격멸에는 실패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수도사단이 수행한 이전의 탐색격멸 작전들과 마찬가지로 적 주력을 발견하여 고착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베트콩은 한국군의 공세를 조직적으로 회피했다. 여기에 한국군 자체의 문제도 있었다. 탐색격멸이라는 임무에도 불구하고, 한국군은 두 사단의 연결이라는 상징적 목표 달성을 위해 나머지 각 계대가 연결 작전을 위한 속도전에 집중하며 부대의 진격에만 주력했다. 작전에 참여했던 9사단 28연대 1대대장 이영우 중령은 “작전 시에도 부대끼리의 전과에 대한 경쟁으로 편키[표현하기] 곤란한 완력”이 많았고, “오작교 작전은 정책적인 이상한 쇼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sup>23)</sup>

4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된 오작교 작전의 두 번째 단계, 오작교 II에서 한국군은 새롭게 확보한 지역 확보와 안정화를 목표로 평정작전을 진행했다. 1단계 작전을 통해 530km<sup>2</sup> 추가되어 전술책임지역이 총 3,230km<sup>2</sup>가 된 수도사단은 이 중 안전지역을 2,900km<sup>2</sup>, 안전 확보 중인 지역을 100km<sup>2</sup>, 소탕 중인 지역을 230km<sup>2</sup>로 평가 내리면서, 두 개 대대에 안전 확보 및 소탕 중인 지역 330km<sup>2</sup>을 담당하게 했다.<sup>24)</sup> 한편, 9사단의

22) 위의 책, 502-505쪽; 유병현, 『유병현 자서전』 (서울: 조갑제닷컴, 2013), 127쪽.

23) 이영우 증언, 1980년 8월 13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증언을 통해 본 베트남 전쟁과 한국군』 2권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148쪽.

24) 국방부, 앞의 책, 515쪽.

경우 새롭게 확보한 지역 320km<sup>2</sup> 중 절반은 남베트남군이 담당했고, 나머지 절반은 9사단의 한 개 대대가 맡았다.<sup>25)</sup> 두 사단의 각 소총 중대는 광범위한 지역에 분산되어 중대전술기지를 구축하고, 수색, 정찰, 매복을 포함한 소부대 작전을 수행했다. 당시 한국군 1개 대대는 4개 중대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각 중대는 약 40km<sup>2</sup>의 넓은 지역의 평정을 담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평정작전은 전반적으로 큰 문제 없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광범위한 지역을 책임져야 하는 부담과 함께, 그간 작전에서의 승리에 방심하여 경계 임무를 소홀히 한 한국군 일부 중대들은 베트콩의 공격에 큰 피해를 보기도 했다. 먼저 오작교 작전 1단계 중인 4월 10일, 9사단 28연대 11중대는 중대전술기지에 대한 적 기습 공격으로 12명의 전사자를 포함해 34명의 사상자를 냈다. 한 달여 뒤인 오작교 작전 2단계 중인 5월 16일, 수도사단 26연대 2중대는 적의 공격에 18명의 전사자 포함 58명의 사상자를 냈으며, 중대전술기지가 유린됐다.<sup>26)</sup> 작전 간 주민 통제 과정에서 문제가 노출되었다. 민간인 소개 간에 아사 및 강간 사건이 발생하면서 주민 분리 및 보호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sup>27)</sup>

베트콩 주력 격멸의 실패와 한국군 중대전술기지의 유린, 그리고 민간인 피해에도 불구하고, 오작교 작전은 동맹군의 전략 목표인 평정 차원에서 충분히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67년 3월 8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두 달 동안 진행된 오작교 작전의 결과, 수도사단과 9사단이 연결되었으며,

25) 위의 책, 514쪽.

26) 심호섭, 앞의 책, 113쪽.

27) 김치호 증언, 1980년 8월 18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증언을 통해 본 베트남 전쟁과 한국군』 1권, 141쪽; 박정원(수도 1연대 2대대장) 증언, 1980년 7월 19일, 위의 책, 534-535쪽; 권영철(제10포병대대 작전장교) 증언, 1980년 8월 12일-13일, 위의 책, 548쪽.

한국군은 전술책임지역을 기존 4,470km<sup>2</sup>에서 6,800km<sup>2</sup>로 확장했다. 즉, 새로운 지역을 확보하고 이 지역의 평정을 진행하는 군사적 성공을 거둔 것이다. 또한 ‘사살율’(교환비)<sup>28)</sup>로 대변되는 전투 효율성 측면에서 한국군은 매우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 오작교 작전에서 한국군은 적군 940명을 사살하고 432명을 포로로 잡았으며, 그중 288명을 귀순시켰고, 681정의 소화기와 30정의 공용화기를 노획했다. 이에 비해 한국군의 사상자는 115명에 불과했다.<sup>29)</sup> 더욱이 한국군은 지역 확보에 대한 목표를 최초 계획보다 15일 앞당겨 달성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사상자 수 역시 최초 예상보다 1/3로 줄였다.<sup>30)</sup>

오작교 작전은 지역 확보의 측면에서 성공적인 군사작전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당시 평정의 성공 여부와 그 기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존재했다. 각종 사건조사와 야전회보 발간을 담당한 주월사령부 전투발전부장 대리 김치호 대령은 오작교 작전이 정치적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군은 “서로가 공명심에 불타서 자기부대의 실패는 쉬쉬하고, 잘된 점만을 내놓는” 경향이 있었다고 증언했다.<sup>31)</sup> 실제로 오작교 작전 종료 후에도 한국군은 해당 지역에 계속 주둔하며 잔적 소탕과 지역 확보를 위한 평정작전을 지속했다. 따라서 오작교 작전으로 새롭게 확보된 지역이 완벽히 평정되었다기보다는, 이 작전이 해당 지역 평정의 본격적인 시작점이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와 같은 평정의 한계는 한국군뿐 아니라 남베트남군

28) 당시 주월한국군은 전투에서 양측 전사자 수의 비교 비율을 ‘사살율’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이를 ‘사살율’ 대신 전사자를 포함한 사상자 수를 기준으로 한 ‘교환비’라는 용어로 사용하겠다.

29) 주월한국군사령부, 『월남전 종합연구』(사이공, 주월한국군사령부, 1974), 542쪽.

30) 국방부, 『파월한국군전사』 2권(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1), 514쪽; 주월한국군사령부, 『주월군전투제원』(사이공: 주월사, 1969), 1쪽.

31) 김치호 증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책, 143쪽.

과 동맹군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문제였다. 평정의 성공 여부가 애매모호하고, 그 성공의 범주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남베트남 평정을 목표로 한 베트남 전쟁이 끝없는 소모전으로 이어진 구조적 이유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오작교 작전의 연장선상에서 수행된 군사작전이 홍길동 작전이었다. 홍길동 작전은 한국군의 또 다른 대부대 군사작전으로, 오작교 작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는 오작교 작전이 두 사단을 연결에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베트남을 격멸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반영한 것이었다. 더불어 미군 정보에 따르면 오작교 작전으로 확보한 지역에 북베트남 정규군 5사단이 증강된 정황이 포착되었고, 이에 따라 한국군은 선제적으로 이를 공격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채명신 중장은 홍길동 작전을 “오작교 작전에서 확보된 지역을 공고히 하고, 침투를 노리는 적을 중간 집결지에서 분쇄한 작전”으로 평가했다.<sup>32)</sup>

오작교 작전이 군사작전의 분류상 반드시 탐색격멸을 목표로 하지 않았던 반면, 홍길동 작전은 미국식 탐색격멸 작전 개념에 충실하게 진행되었다. 즉, 화력과 기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적을 격멸하고 소탕하는 것이 작전의 주된 목표였다. 이에 대해 채명신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제까지 우리의 작전은 촌락작전을 위주로 했는데 홍길동 작전은 산악지역으로 걸어서 올라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대 헬리콥터 기동작전을 했습니다. 갑자기 홍길동이 나타나서 치는 것과 같은 것이니까 작전의 명칭을 홍길동 작전이라고 불렀습니다.<sup>33)</sup>

32) 채명신 증언, 1969년 8월 21일, 위의 책, 92쪽.

33) 위의 책.

이처럼 홍길동 작전은 이름처럼 ‘동에 번쩍, 서에 번쩍’ 기동하며 적을 격멸하는 것을 목표로 한 작전이였다. 이를 위해 먼저 수도사단에서 5개 대대, 9사단에서 6개 대대의 대부대를 투입했다.<sup>34)</sup> 여기에 홍길동 작전은 그 작전 개념 자체가 “선제공격을 통해 적의 심장부를 타격한다”였을 정도로, 기존의 한국군 대부대 군사작전에 비해 훨씬 더 공세적이고 대담한 대부대 작전이였다.<sup>35)</sup> 채명신의 “적이 완전한 공격 준비를 갖추기 전 가장 취약한 시기인 중간 집결지에서 때리자”라는 작전 방침에 따라,<sup>36)</sup> 한국군은 속도와 기습을 통해 적을 격멸하기 위해 미군의 기동 능력에 크게 의존했다. 작전 개시 당일에만 “30여 대의 UH1D와 9대의 CH47을 동원”했으며,<sup>37)</sup> 한 달 반 동안 진행된 작전에서 미군 헬기를 통해 중북 포함 총 2만여 명에 달하는 병력이 기동했다.<sup>38)</sup>

7월 9일, 한국군은 오작교 작전을 통해 새롭게 확보한 지역에서 홍길동 작전을 개시했다. 한국군은 적 주력으로 판단된 북베트남군 5사단 95연대를 고차시키고 섬멸하기 위해 첫날 50km 반경의 포위망을 완벽히 형성한 후, 하루에 1~2km씩 포위망을 좁혀가며 적을 압박했다.<sup>39)</sup> 북베트남 정규군을 상대로 했던 작전인 만큼, 한국군은 이 작전에서 어려운 전투를 예상했다. 그러나 작전 기간 48일 동안 적 주력과의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았

34) 국방부, 『파월한국군전사』 3권 (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71), 120쪽.

35) 수도사단, 『전투상보 제69호: 홍길동』, 1967, HB00106.

36) 채명신 증언, 1969년 8월 1일, 67쪽.

37) “MACV Commanders’ Conference 24 September 1967,” 12 October 1967. Box 23, Historians Background Material Files, RG 472, National Archives II(NARA II), College Park, MD.

38) 10th Combat Aviation Battalion, “After Action Report - Operation HONG KIL DONG,” 12 September 1967, Folder 17, Box 4, Richard Detra Collection, VNCA.

39) 위의 책; “MACV Commanders’ Conference 24 September 1967,” NARA II.

다.<sup>40)</sup> 한국군은 북베트남 5사단 사령부가 주도한 것으로 추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공중 기동을 통해 여러 개의 포위망을 형성했으나, 탐색격멸의 성과는 미미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포병 관측장교 최광희 중위는 그의 수기에 “많은 적의 활동을 예상했고 또 그렇게 한번 멋들어지게 싸워 보았으면 했는데 홍길동 작전이 시작된 지 2주일이 지난 그날까지 이렇다 할 큰 접전은 없었다”라고 기록했다.<sup>41)</sup> 수도 기갑연대 6중대 3소대장 정태준 중위 또한 “홍길동 작전 개시 이래 15일이 지나도록 시원하게 전투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늘은 다음 단계 작전을 위하여 대대 집결지로 1700[시]까지 집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라고 말했다.<sup>42)</sup>

전형적인 대부대 탐색격멸 작전으로 시작했지만, 한국군의 작전은 적 주력과의 직접적인 교전 없이 결국 분산된 소부대 부대의 작전으로 전환되었다. MACV 회의에서 한국군 대표는 “적은 우리 한국군 기동부대의 전력을 과대평가한 나머지 조직적인 방어를 시도하기보다는 흩어져 퇴각했습니다. 미처 퇴각하지 못한 일부는 동굴에 숨었습니다”라고 설명했다.<sup>43)</sup> 북베트남 정규군 장교로부터 적군이 이미 퇴각했다는 증언을 확보한 한국군은 이를 바탕으로 47일간 이어진 홍길동 작전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했다.<sup>44)</sup>

비록 적의 회피로 인해 탐색격멸을 통한 적 주력을 격멸은 실패했지만, 홍길동 작전은 분산된 소부대 작전을 통해 상당한 군사적 성과를 거두었다. 미군은 홍길동 작전에 대해 “푸옌 지역의 한국군 9사단과 수도사단은 북베트남군 95연대에 큰 인명 및 장

40) 수도사단, 앞의 책, HB00106.

41) 「최광희 수기」, 위의 책, HB00106.

42) 「정태준 수기」, 위의 책, HB00106.

43) MACV Commanders' Conference 24 September 1967, NARA II.

44) 수도사단, 앞의 책, HB00106.

비 피해를 입히며, 푸옌 지역을 확보하려는 적의 목표를 좌절시켰다”라고 평가했다.<sup>45)</sup> 수도사단의 전투상보에 따르면, 한국군은 작전 기간 동안 적군 394명을 사살하고 34명의 포로를 획득했으며, 이는 북베트남군 95연대 두 개 대대의 15~20%의 병력 손실에 해당되었다. 또한 해당 부대는 전체 보유 무기의 19%를 잃는 피해를 입었다.<sup>46)</sup> 더 나아가, 미군의 평가에서는 더욱 긍정적인 결과가 언급되었다. MACV의 1967년 9월 월간 평가에 따르면, “홍길동 작전에서 한국군은 27명이 전사하고 68명이 부상했으나, 637명의 적군을 사살하고 88명을 포로로 잡았다. 이 작전은 [해당 지역에] 적 주력이 가하던 주요 위협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데 성공했다”라고 밝혔다.<sup>47)</sup>

또한 오작교 작전에서 1:30의 교환비를 기록했던 것처럼, 홍길동 작전에서도 1:23의 교환비를 기록하며 전투 효율 면에서 한국군의 우수성을 입증했다.<sup>48)</sup> 이러한 결과는 최소 희생으로 최대 효과를 거두려는 한국군 자체적인 목표를 충족시킨 것이었다. 더 나아가 한국군은 획득 무기와 사살한 적군의 비율이 1:1.3에 달했음을 근거로, 적군의 살상보다는 상대적으로 다수의 무기와 장비를 노획한 점을 강조하며, 아군뿐만 아니라 적군의 피해도 최소화하면서 성과를 거두었음을 주장했다.<sup>49)</sup> 이는 대외적으로 한국군이 적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주민의 마음을 얻으려 노력한다는 점을 부각하려고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45) Memos from COMUSMACV to President Lyndon B. Johnson, “Monthly Assessment,” 6 September 1967, Folder 2, Box 2, Veteran Members of the 109th Quartermaster Company Collection, VNCA.

46) 수도사단, 앞의 책, HB00106.

47) Memos from COMUSMACV to President Lyndon B. Johnson, “Monthly Assessment,” VNCA.

48) 수도사단, 앞의 책, HB00106.; 9사단, 앞의 책, HB00010.

49) 수도사단, 『전투상보 제 58호: 오작교 1호』, 1967, HB00105.

한국군의 대부대 군사작전의 형태와 특징은 오작교 작전과 홍길동 작전의 계획, 경과, 결과를 통해 정의할 수 있다. 오작교 작전은 첫 단계에서 전술책임지역 연결과 함께 탐색격멸을 통한 적 격멸을 목표로 삼았으나, 전형적인 미국식 탐색격멸, 즉 화력과 기동으로 적을 찾아 고착시키고 섬멸하는 방식과는 차이를 보였다. 이후 이어지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새롭게 확보한 지역의 잔적 소탕과 안정화에 중점을 두었다. 반면, 홍길동 작전은 계획과 실행 면에서 전형적인 탐색격멸 작전의 특징을 따랐으나, 적의 회피와 퇴각으로 인해 주력 격멸에는 실패했다. 대신 분산된 소부대 작전을 통해 전과를 올리며 지역 확보와 평정에 기여했다. 결과적으로 두 작전 모두 표면적으로는 적 격멸과 지역 확보를 동시에 추구하는 공세적 성격을 띄었지만, 실제로는 적 주력 격멸보다는 지역을 확보하고 안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군사작전의 형태에서 탐색격멸은 기동과 화력을 중심으로 한 정규전적 성격의 작전이었고, 소탕과 확보 작전은 비정규전적 성격의 평정작전에 가까웠다. 동맹군은 탐색격멸을 통해 적 주력을 격멸한 뒤, 잔적을 소탕하고, 지역을 확보하여 남베트남 정부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순서로 평정을 달성할 것을 가정했다. 그러나 실제 작전 수행에서는 탐색격멸과 소탕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았고, 상황에 따라 작전의 성격이 중첩되거나 변화하기도 했다. 미군은 소탕을 “공세적인 전투 작전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베트콩을 영구적으로 추방하거나 파괴하는 것”으로 정의했다.<sup>50)</sup> 더욱이 탐색격멸 작전과 마찬가지로 소탕 작전의 목표 역시 “조직적인 북베트남군과 베트콩을 제거하고 지역에서 적군의 위협

50) Headquarters US MACV, “Tactics and Techniques for Employment of US Forces in the Republic of Vietnam,” 17 September 1965, Folder 3, Box 3, Larry Berman Collection, VNCA.

을 영구적으로 제거”하는 것이었다.<sup>51)</sup> 그러나 평정 달성의 기준에서 소탕 작전은 “비슷한 전술들이 채용되었음에도 탐색격멸 작전과는 완전히 달랐다.”<sup>52)</sup> 탐색격멸이 특정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적을 추적하고 격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소탕은 평정이 진행될 지역 내의 잔적을 격멸하고 무력화하여, 이후의 확보 작전과 함께 남베트남 정부가 이 지역에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sup>53)</sup> 이에 따라 소탕 작전은 그 다음 단계인 지역 확보와 개발 및 안정화를 위한 본격적인 평정으로 직결되었다.

한국군의 대부대 군사작전은 이러한 군사작전 형태 분류에 비추어볼 때 소탕 작전에 가까웠다. 오작교 작전은 외형적으로는 연합전역계획을 따르는 탐색격멸 작전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장기간 지역에 주둔하며 평정을 도모하는 소탕 작전의 성격이 강했다.<sup>54)</sup> 홍길동 작전 역시 탐색격멸을 목표로 했지만, 적의 회피로 인해 탐색격멸은 실패했고 소부대 작전을 통해 잔적을 소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결과적으로 두 작전 모두 적의 격멸보다는 지역의 확보와 평정에 주안점을 둔 소탕 작전이었던 것이다.

1967년 연합전역계획에 따르면, 미군과 한국군은 탐색격멸 작전을, 남베트남 정규군은 소탕 작전을, 남베트남 민병대(Popular Forces, PF)와 지방군(Regional Forces, RF)은 확보 작전을

51) “Military Participation in Revolutionary Development,” November 1966, Folder 9, Box 4, Douglas Pike Collection, VNCA.

52) Ibid.

53) Major Robert A. Doughty, *The Evolution of US Army Tactical Doctrine, 1946-76* (Ft. Leavenworth, KS: Combat Studies Institute, U.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 1979), p. 32.

54) Headquarters 1st Cavalry Division, “Quarterly Command Report for Second Fiscal Quarter, FY 66,” Box 23, Historians Background Material Files, RG 472, NARA II.

수행하며 전략적 목표인 평정을 달성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한국군이 어떻게 남베트남 정규군이 수행해야 할 소탕 작전을 담당할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한 실마리는 웨스트모어랜드 대장의 다음 언급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군의 수도사단과 9사단은 중부 해안 지대에서 성공적인 소탕 작전을 완수했다. 특히, 한국군의 가장 대부대 군사작전 중 하나인 3~4월의 오작교 I 작전에서 한국군 두 개 사단은 전술책임지역을 연결시키고, 해안을 따라 이어지는 1번 도로의 많은 부분을 확보했다. 이후 한국군이 점차 [남베트남군] II군단 책임지역인 해안 지역을 맡게 되어, 미군 부대들은 다른 [탐색격멸] 임무로 전환할 수 있었다.<sup>55)</sup>

이처럼 한국군은 소탕 작전을 수행했고, 이는 평정 달성을 위한 미군의 군사적 노력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미군의 평가처럼 “남베트남 정규군은 높은 수준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으나, 효과적인 소탕 작전을 수행할 충분한 전투력을 보유하지 못했다.”<sup>56)</sup> 주로 소탕 작전을 담당했던 남베트남 정규군의 전투력이 한국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였기에, 한국군의 성공적인 소탕 작전은 그 정당성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sup>57)</sup> 더욱이 탐색격멸과 소탕 모두 적군을 격멸하는 공세적 성격의 군사작전이었다. 1967년 연합전역계획에서도 “임무에 대해 아주 명확한 구분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한 것처럼,<sup>58)</sup>

55) Sharp and Westmoreland, *Ibid.*, p. 142.

56) Memorandum from W. Robert Warne to Mr. Puritano, “Paper Describing RD/Pacification,” 6 June 1967, Reel 2, Johnson National Security Files (microfilm), VNCA.

57) Headquarters 1st Cavalry Division, “Quarterly Command Report for Second Fiscal Quarter, FY 66,” NARA II.

58) “Military Assistance Command Vietnam, and Joint General Staff, Republic of Vietnam Armed Forces, Combined Campaign Plan 1967,” VNCA.

미군은 한국군의 소탕 작전에 대해, 탐색격멸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할 수 없었다. 한국군이 미군과 남베트남군 사이의 작전적 공백을 절묘하게 파고들어 메운 셈이다.

동시에 이는 한국군이 탐색격멸과 소탕의 미묘한 차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두 작전 모두 공세적 성격을 띠었지만, 한국군은 탐색격멸이라는 명분 아래 실제로는 담당 지역 내에서 장기간에 걸쳐 적을 소탕하는 방식으로 작전을 수행했다. 소탕 작전은 화력과 기동에서 미군에 비해 열세였던 한국군에게 현실적인 대안이었으며,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거두려는 한국군의 자체적인 목표와도 부합했다. 무엇보다도, 비정규전 양상의 게릴라전이 지배적이었던 베트남 전쟁에서 소탕 작전은 적의 회피와 피아식별의 어려움으로 인해 적 격멸이 어렵고 난민과 민간인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탐색격멸의 근본적 한계와 부작용을 극복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 4. 미 관찰단의 평가로 본 한국군 대부대 작전: 소부대 작전 중심의 방식

연합전역계획에 따른 주월한국군의 일련의 대부대 군사작전에 대한 미군의 관심은 대규모 관찰단(또는 참관단, Observer)을 파견할 정도로 높았다. 한국군 2개 사단과 함께 남베트남 2군단 지역에 주둔했던 미 I 야전군은 오작교 작전을 수행하는 수도사단과 9사단에 관찰단을 파견했다. 이들의 임무는 한국군의 작전 및 전투 수행을 관찰하는 것이었다.<sup>59)</sup> 관찰단은 각각 한 명의

59) I Field Force Vietnam, "Tactics and Techniques used by Republic of Korea Forces in Vietnam, 3 May 1967, AD390963, Defense Technical Information Center (DTIC).

장교와 부사관으로 구성된 16개 팀으로 이루어졌으며, 1967년 3월 16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각 팀이 한국군 1개 소총 중대와 함께 짝을 이루어 활동했다. 그러나 타국의 군대를 관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임무였다. 관찰단은 관찰 결과로서 사전에 지시받은 19가지 항목에 대한 답변과 함께 한국군의 전술과 기술에 대한 정보를 보고해야 했다. 더욱이 이 기간 동안 관찰관들은 “한국군 중대와 함께 생활하고, 먹고 자며, 필요한 경우 [한국군] 중대의 방어를 위해 함께 싸워야 했다.”<sup>60)</sup>

6·25전쟁 이후부터 스스로를 한국군의 스승이라 여겼던 미군이 한국군에게 배울 점을 찾으려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주월 미군사령부에서 “[그동안] 성공적인 결과를 달성한 한국군이 사용한 전술과 기술을 식별하기 위해” 관찰단을 파견했다고 명시한 바와 같이, 미군은 파월 초기부터 1966년까지 한국군이 기록한 군사적 성과의 이유를 알고자 했다.<sup>61)</sup> 그동안 높은 교환비와 성공적인 작전 결과를 보인 한국군에 대해, 미군은 그 성과의 진위를 확인하고 그 비결을 찾아내려 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국군이 대부대 군사작전에서도 같은 수준의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의구심이 함께 있었다. 특히 과거 미군이 평정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에서 한국군이 수행할 예정이었던 오작교 작전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미군 내에서는 비관적인 시각이 존재했다. 미군은 한국군이 이 작전에서 실패할 경우, 그로부터 교훈을 도출하여 한국군에게 필요한 가르침을 주고, 더 나아가 보다 적극적인 군사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결국, 미군은 한국군의 대부대 군사작전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결과를 분석해 군사적 교훈을 얻고자 했던 것이다.

60) Ibid.

61) Ibid.

놀랍게도 미 관찰단은 미군이 한국군으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군의 성공은 독창적이거나 특별한 전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기존 전술을 철저히 적용하고 실천한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관찰단은 한국군이 미군 교리에 부합하는 전술을 사용했으며, 그 전술의 우수한 적용과 실천이 성공의 주요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먼저, 미 관찰단은 한국군의 전술 적용과 행동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 관찰관들은 한국군의 우수한 소부대 작전 수행이 대부대 작전의 성공을 결정짓는 핵심임에 동의했다. 한국군의 전술이 미군 교리에 기반을 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소대, 중대, 대대 작전은 화력과 기동의 숙련된 사용과 엄격한 화력 통제를 통해 특징지어졌다”라고 평가했다.<sup>62)</sup> 더 나아가 관찰관들은 한국군의 자체적인 특성도 발견했다. “모든 유형의 작전과 사용된 형태에 관계없이, 한국군의 행동은 인내, 상황에 대한 철저한 평가, 화력과 기동의 효과적인 사용, 의심되는 지역에 대한 수색 및 재수색으로 특징지어졌다”라는 것이다.<sup>63)</sup> 관찰단은 “그들[한국군]은 시간을 들여 철저히 준비하고, 부대가 완전히 준비될 때까지 이동하지 않았다”라고 언급하며, 한국군에 대한 “기존의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라는 비판이 [이제는] 주의 깊음과 철저함으로 대체됐다”라고 평가했다.<sup>64)</sup>

오작교 작전에서 한국군은 탐색격멸 작전 본래의 목표인 적 주력을 찾고 섬멸하는 데는 직접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으나, 우수한 소부대 작전을 통해 지역 확보와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한국군은 군단급 규모의 작전을 계획했으나, 실제

62) “Tactics and Techniques used by Republic of Korea Forces in Vietnam,” VNCA.

63) Ibid.

64) Ibid.

로는 두 사단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독립적인 작전을 수행했다. 수도사단과 9사단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 진격하며, 작전 지역에 네 단계의 차단선을 설정해 ‘탐색격멸’ (실제로는 소탕) 작전을 진행했다.<sup>65)</sup> 그러나 한국군의 작전은 넓은 지역을 포위하는 대부대 작전이 아닌, 특정 지역에서의 집중적인 수색 작전으로 전환되었다. 오작교 I 작전 동안 한국군 중대는 헬리콥터로 특정 지역에 침투해 기습 수색을 진행했고, 이후 할당된 구역에서 화력을 사용하는 대신 반복적인 수색 작전을 펼쳤다. 중대들은 종종 작전 구역을 교체하며 ‘반전작전’과 ‘깎아뭇개기 작전’을 실시했다.

반전작전은 “한국군의 월남전 사상 최초로 시도된 작전으로서 일단 정밀수색을 완료한 지역에 대하여 은밀히 포위하여 적의 긴장감이 풀린 시기를 포착하여 기습적인 수색작전을 감행하는 것”이었다.<sup>66)</sup> 깎아뭇개기 작전은 각 중대가 한 번의 작전 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특정 지역에 머물며 반복적인 수색과 정찰을 진행하는 방식이었다.<sup>67)</sup> 이와 같은 전술은 이전의 푸캇산 지역에서의 맹호 6호 작전에서도 사용된 바 있으며, 오작교 작전에서는 더 많은 중대가 넓은 지역에서 이를 적용했다. 한국군은 베트남이 미군의 장기간 작전에 이미 적응한 상황에서, 미군과는 다른 전술을 적용해야 했다고 설명했다.<sup>68)</sup> 이는 상당한 인내를 요구했으나, 초기 한국군의 공세를 회피한 베트남이 한국군의 첫 번째 수색 후 경계를 늦추면서 효과를 발휘했다.

대부대 군사작전임에도 불구하고, 미 관찰단이 지적한 것처럼

65) 국방부, 앞의 책, 390쪽.

66) 수도사단, 앞의 책, HB00105.

67) 박정원(수도사단 1연대 2대대장) 증언, 1980년 7월 19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책, 534-535쪽; 박완식(수도사단 26연대장) 증언, 1980년 7월 8일, 위의 책, 522쪽.

68) 수도사단, 앞의 책, HB00105.

화력에 의존하지 않은 점은 오작교 작전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였다. 특히, 채명신 사령관은 촌락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촌락에 대한 포병 사용을 금지했다.<sup>69)</sup> 이는 한국군 전술이 주민 보호를 우선시하며, 화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한국군의 소부대 전술은 화력과 헬리콥터 기동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았으며, 작전 초기에는 헬리콥터를 사용했지만, 이후에는 도보 이동과 중대 기지 설치를 통해 장기간 지역 내에 주둔하며 작전을 수행했다.

이처럼 한국군 중대는 미 관찰단이 평가한 미군식 전술의 우수한 적용에 더해, 미군과는 다른 전술적 접근을 보여주었다. 대부대 작전에서도 한국군 소부대의 수색 및 정찰 전술과 기술이 적 병력과 무기를 찾아내고 격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대해 모든 미 관찰관들이 동의했다.<sup>70)</sup> 한국군 중대의 할당된 작전 지역은 미군에 비해 훨씬 작았다. 그 이유를 관찰단은 “한국군 고급 지휘관은 광범위한 지역을 대략적으로 훑어가는 것보다 소부대가 좁은 지역을 엄밀히 수색해 나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으로 판단하고 있었다”로 추측했다.<sup>71)</sup> 실제로 한국군 대대는 평균적으로 24시간 동안 약 3~4km<sup>2</sup>의 지역을 수색한 뒤, 며칠 후 동일한 지역을 다시 수색하는 방식으로 작전을 진행했다.<sup>72)</sup>

앞서 설명했듯이, 한국군은 단순히 작전 지역을 휩쓸고 지나가기보다는 지역에 오래 머물면서 중대 단위로 서로 다른 소대들이 동일한 지역을 여러 차례 수색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촌락

69) 채명신 증언, 1969년 8월 21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책, 93쪽; 김치호 증언, 1980년 7월 18일, 위의 책, 142쪽.

70) 9사단, 「미군에 의한 오작교 작전 참관 보고」, 『전투상보』 1967. 3~5, HB00016.

71) 위의 책.

72) 위의 책.

에 대한 포위 및 수색 작전에서도 한국군은 며칠 후 같은 촌락을 다시 찾아가 추가 작전을 수행하는 접근법을 사용했으며, 이 점에서 미 관찰관들은 깊은 인상을 받았다. 미 관찰단은 한국군의 높은 교환비와 같은 성공 비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한국군은 비교적 협소한 지역을 베트콩이 완전히 사살되거나 포로로 잡힐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색을 반복하며, 지역 수색에 충분한 시간을 할당하고 또한 한국군 병사는 사냥꾼이 그의 목표물을 찾아 추적하는 식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sup>73)</sup>

이에 더해 미 관찰관들은 한국군의 매복 전술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그들은 한국군의 매복 전술을 분석한 결과, 미군의 매복 부대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결론을 내리며 한국군의 매복 전술의 효용성을 인정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군은 미군과 달리 지휘소를 야간에 이동시키는 방법을 채택했는데, 이는 관찰단에게 한국군의 대범함을 인상 깊게 남겼다. 오작교 작전 이전에 수도사단의 맹호 11호 작전을 참관한 미 관찰단은 한국군이 야간 작전에 능숙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sup>74)</sup>

미 관찰단은 한국군의 뛰어난 소부대 전투 수행 능력과 더불어, 한국군 자체의 우수성을 한국군의 성공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첫째, 관찰단은 “한국군은 장교, 부사관, 병 사이에 강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작전에 대해서는 중대원 전부가 숙지하고 소통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sup>75)</sup> 둘째, 한국군을 엄정한 규율을 지닌 군대로 평가했다. 관찰단은 “규율은 한국군에게

73) 위의 책.

74) 위의 책.

75) I Field Force Vietnam, “Tactics and Techniques used by Republic of Korea Forces in Vietnam,” DTIC.

제2의 본성이며, 병사들은 상급자의 명령에 즉각적이고 쾌활하게 반응한다”라고 보았다. 비록 이러한 맹목적인 복종이 항상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관찰단은 한국군이 명령이 없는 상황에서도 평소 훈련된 대로 대응할 수 있기에 이러한 규율이 작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sup>76)</sup> 셋째, 관찰단의 평가에 따르면 한국군은 베트남 전선에서 보기 드물게 매우 높은 사기를 유지하는 부대였다. 보고서는 “장교들과 병사들은 항상 열정적이었으며, 명령에 대한 쾌활한 복종, 성취에 대한 강한 욕구, 그리고 개별 병사 수준에서의 공격적인 태도가 한국군 부대의 예외적으로 높은 사기를 이끌어냈다”라고 강조했다.<sup>77)</sup> 이처럼 관찰단은 한국군을 “미군이 오랜 시간 잊고 있던 보병 고유의 기본적 전술에 여전히 능숙한 훌륭한 전사”로 여기며, 한국군의 전술적 능력과 우수성을 높이 평가했다.<sup>78)</sup>

한편, 한국군의 군사작전 성공 요인을 도출함과 동시에, 미 관찰단은 한국군의 약점도 지적했다. 관찰단은 화력 활용 부족을 한국군 작전의 주요 약점으로 꼽으며, 한국군이 대규모 북베트남 정규군과의 전통적인 방식의 전투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관찰단은 “[한국군의] 작전 중 공중 및 포병 지원 화력은 거의 없었다”라고 기록했으며,<sup>79)</sup> 한국군 상급 부대에 배치된 미 연락장교들 역시 “[작전 기간 동안] 한국군 지휘부가 근접항공지원이나 AC-47 건설 화력 지원을 요청하는 것을 전혀 관찰하지 못했다”라고 보고했다.<sup>80)</sup> 이러한 현상은 한국군이 적 주력과 직접 교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화력 지원을

---

76) Ibid.

77) Ibid.

78) Ibid.

79) Ibid.

80) Ibid.

요청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소부대 지휘관들이 실제로 포병 화력 지원을 요청하고 싶어하지 않았다”라는 점도 관찰되었다.<sup>81)</sup> 관찰단은 이를 두고 “미군의 관점에서 이것은 한국군의 명백한 전술적 약점이며, 그들이 적의 대부대 부대를 만났을 때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결론 내렸다.<sup>82)</sup> 또한 관찰단은 신호 장비의 부족과 화력 사용의 결점도 한국군 작전 수행에 있어 큰 문제로 지적했다.<sup>83)</sup> 결과적으로, 대부대 정규전 양상의 군사작전에서 필요한 화력 활용 능력의 부재와 결점이 한국군에게 큰 도전이 될 거라는 관찰단의 지적은, 한국군이 작전 수행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 부각되었다.

다만, 미 관찰단의 평가는 한국군의 화력 의존도가 의도적으로 제한된 것인지, 아니면 활용의 미숙함 때문인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러한 미군의 평가는 주월 한국군이 7월 9일 홍길동 작전을 개시하는 주요 동기 중 하나가 되었다. 당시 “한국군 작전 지역의 외곽에서 한국군이 시도한 첫 번째 주요 탐색격멸 작전”<sup>84)</sup>으로 평가받은 홍길동 작전에서 한국군은 대부대 작전에서 강력한 화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입증하고자 했다. 전투상보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는 오작교 작전까지 특정 지역에서 적의 주력을 수색한 후 기지 건설, 민간인 보호, 영토 확보에 집중했다. 그러나 홍길동 작전에서는 넓은 지역에 걸쳐 여섯 개의 작전 구역을 설정한 후, 첫 번째 작전 구역에서 작전을 시작하여 [첫 번째 구역에 머무르지 않고] 공중 기동 및 지상 이동을 통해 두 번째 및 세 번째 구

81) Ibid.

82) 9사단, 「미군에 의한 오작교 작전 참관 보고」, HB00016.

83) 위의 책.

84) “MACV Commanders’ Conference 24 September 1967,” NARA II.

역으로 이동했다.<sup>85)</sup>

작전명처럼 홍길동 작전에서 한국군은 헬리콥터를 활용해 적을 신속하게 찾아 격멸하는 전략을 추구했다. 동시에 채명신 중장이 속도에만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압도적인 화력을 적에게 집중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정도로, 포위망을 형성해 그 안의 적을 화력으로 타격하려는 작전 개념 아래 탐색격멸을 실시했다. 특히, 채명신은 기존과 달리 촌락에 대한 포병 공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화력 사용에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작전 기간인 7월 9일부터 8월 26일까지 적 주력과 접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최초 의도했던 적 주력 격멸에는 실패했다.<sup>86)</sup> 이는 적이 미리 회피함으로써 탐색격멸의 목표가 달성되지 못한 결과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I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홍길동 작전은 적군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히며 지역의 안정화와 평정에 기여한 군사작전이었다. 전투상보의 내용과 유사하게 미군 및 남베트남군과의 회의에서 한국군 대표가 “[홍길동] 작전의 성공은 개별 병사의 공격성과 우리가 사용한 야간의 매복 기술 덕분이었다”라고 밝힌 바와 같이,<sup>87)</sup> 한국군은 대부대 작전에 있어서 소부대 작전의 중요성과 기여를 인정했다. 결국, 홍길동 작전 역시 우수한 능력을 갖춘 소부대들의 전투 성공으로 성과를 거두었던 것이다.

한국군 대부대 작전의 핵심은 소부대 작전에 있었다. 한국군 소부대는 대부대 군사작전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오작교 작전과 홍길동 작전의 성과 대부분을 이끌어냈다. 이들 작전이 군단급 대부대 작전으로 계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85) 『전투상보 제69호: 홍길동 작전』, HB00106.

86) 위의 책.

87) 위의 책; “MACV Commanders’ Conference 24 September 1967,” NARA II.

수행 과정에서는 중대급 이하 소부대가 수색, 정찰, 매복 등 소부대 전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진행되었다. 두 군사작전을 지휘했던 수도사단장 유병현 소장 역시 소부대 작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베트남에서의 전투 단위부대는 대대가 아니라 중대가 되어야 하며 중대의 전투 능력이 작전 승패에 중대한 요소라는 생각이 굳어졌다”라고 밝혔다.<sup>88)</sup>

## 5. 맺음말

주월한국군의 대부대 군사작전은 본질적으로 소탕 작전이었다. 대부대 작전은 표면적으로는 미국식 탐색격멸 작전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적의 격멸보다는 지역 내 잔적 소탕과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소부대가 수행한 수색, 정찰, 매복과 같은 소부대 작전이 중심이 되었으며, 이러한 방식이 바로 한국식 소탕 작전의 핵심이었다. 미 관찰단이 높이 평가한 바와 같이, 한국군은 병사 개개인의 우수성과 탁월한 소부대 전투 수행을 바탕으로 대부대 작전에서도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한국군의 성과는 원래 지역 내 소탕 작전을 담당하는 남베트남 정규군의 상대적으로 열세한 전투 능력과 맞물려, 한국식 소탕 작전이 동맹군의 군사작전 임무 분장에서 용인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다.

한국군의 독특한 대부대 군사작전은 한국군의 베트남 전쟁 수행에서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작전을 통해 한국군은 최소 희생으로 최대 성과를 달성하려는 내부 목표를 실현

88) 유병현, 앞의 책, 103쪽.

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소탕 작전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는 동시에 동맹군의 전쟁 목표인 평정에도 기여함으로써 한국군 주둔 명분을 강화할 수 있었다. 특히, 소부대 전투 중심의 대부대 군사작전이었기에 전투 강도를 높이지 않고도 군사적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베트남 전쟁 후반기 ‘베트남화’ 과정에서 미군의 단계적 철수에 따라 한국군에 대한 지원 역시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도 한국군이 대부대 군사작전의 빈도를 오히려 증가시킨 점은 주목할 만하다.<sup>89)</sup> 이 시기 한국군은 대부대 군사작전의 빈도를 증가시키며 전쟁 기여를 지속하겠다는 대외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사기와 군기를 재정비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 결과적으로, 한국군의 대규모 군사작전은 단순한 군사적 의미를 넘어 한국의 정치적·전략적 수준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수단과 방법이였다.

한국식 소탕 작전은 남베트남군과 동맹국의 베트남 전쟁 수행에 대한 평가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미국식 탐색격멸 작전이 적 주력 격멸에 한계를 드러냈고, 민간인 피해를 비롯한 여러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는 점에서 한국군의 접근 방식은 더욱 주목할 만하다. 한국식 소탕 작전은 군사적으로 결정적 승리를 거두기 어려운 소모전 양상의 베트남 전쟁에서 최소한의 피해로 성과를 달성함으로써, 남베트남군과 동맹군의 전략 목표인 평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미군의 탐색격멸 작전이 적군에 누적된 피해를 축적함으로써 이후 이 지역에서의 한국군 소탕 작전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는 점도 간과

89) 베트남 전쟁의 베트남화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이 자세하다. 심호섭, 「베트남 전쟁의 ‘베트남화’에 대한 주월한국군의 인식과 대응」, 『백산학보』, 제120호, 2021, 329-357쪽.

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연합전역계획에 따라 각국 군대가 체계적으로 성공적인 군사작전을 수행했다면 남베트남군과 동맹군은 베트남 전쟁에서 성공할 수 있었을까? 남베트남 정부의 유지와 평정을 목표로 한 대반란전이자 방어적 소모전이었던 베트남 전쟁은 단순히 효율적인 군사작전만으로 종결될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1. 사료

#### 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사료실

- 9사단. 『전투상보 제 35호: 오작교 작전』. 1967. HB00010.
- 9사단. 「미군에 의한 오작교 작전 참관 보고」. 『전투상보』 1967. 3~5. HB00016.
- 수도사단. 『전투상보 제 58호: 오작교 1호』. 1967. HB00105.
- 수도사단. 『전투상보 제69호: 홍길동』. 1967. HB00106.
- 주월사령부. 「1996년도 주월한국군 작전개요 및 1967년도 전역계획보고서」. HB02338.

#### 나. The Vietnam Center & Sam Johnson Vietnam Archive (VNCA), Texas Tech University, Lubbock, Texas

- 10th Combat Aviation Battalion, “After Action Report – Operation HONG KIL DONG.” 12 September 1967. Folder 17, Box 4, Richard Detra Collection.
- “Military Assistance Command Vietnam, and Joint General Staff, Republic of
- Vietnam Armed Forces, Combined Campaign Plan 1967.” Folder 14, Box 5, Larry Berman Collection.
- “Military Participation in Revolutionary Development.” November 1966. Folder 9, Box 4, Douglas Pike Collection.
- Memos from COMUSMACV to President Lyndon B. Johnson. “Monthly Assessment.” 6 September 1967. Folder 2, Box 2, Veteran Members of the 109th Quartermaster Company Collection.

- Memorandum from W. Robert Warne to Mr. Puritano, "Paper Describing RD/Pacification." 6 June 1967. Reel 2, Johnson National Security Files (microfilm).
- "Summary of USMACV News Events, 1966." 14 January 1967. Folder 1, Box 0, Bud Harton Collection.

다. National Archives II (NARA II), College Park, MD

- Headquarters 1st Cavalry Division, "Quarterly Command Report for Second Fiscal Quarter, FY 66." Box 23, Historians Background Material Files, RG 472.
- "MACV Commanders' Conference 24 September 1967." 12 October 1967. Box 23, Historians Background Material Files, RG 472.

라. Defense Technical Information Center (DTIC)

- I Field Force Vietnam, "Tactics and Techniques Used by Republic of Korea Forces in Vietnam." 3 May 1967. AD390963.
- "Operational Report for Quarterly Period Ending 31 January 1967." 11 March 1967. AD390962.

마. 기타

- 국방부. 『파월한국군전사』 2권. 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1.
- 국방부. 『파월한국군전사』 3권. 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71.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증언을 통해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1권.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증언을 통해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2권.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 주월한국군사령부. 『월남전 종합연구』. 사이공: 주월한국군사령부, 1974.

## 2. 연구서

- Doughty, Robert A. *The Evolution of US Army Tactical Doctrine, 1946–76*. Ft. Leavenworth, KS: Combat Studies Institute, U.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 1979.
- Lasen, Stanley Robert, and Collins, James Lawton. *Allied Participation in Vietnam*. Washington, DC: Department of the Army, 1975.
- MacGarrigle, George L. *Combat Operations: Taking the Offensive, October 1966 to October 1967*. Washington, DC: Center of Military History, U.S. Army, 1998.
- Sharp, Ulysses S. Grant, and Westmoreland, William C. *Report on the War in Vietnam, as of 30 June 1968*.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9.
- Shim, Hosub. “Journey to Equality: The Establishm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Republic of Korea Forces in the Vietnam War.” *The Journal of American–East Asian Relations* 29 (2022): 391–422.
- 심호섭. 「주월한국군의 중대전술기지 운용이 지닌 이상과 현실」. 『군사』 120호 (2021): 79–130.
- 최용호. 『한권으로 읽는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Abstract>

## The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of the ROK Forces' Large-Scale Military Operations in Vietnam

– Focusing on the 1967 Operations of Oh Jac Kyo and Hong Kil-dong –

Shim, Ho-Sub

This article aim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of the large-scale military operations conducted by the Republic of Korea Forces in Vietnam. By focusing on the 1967 Oh Jac Kyo and Hong Gil-dong operations, this article reveals that the large-scale operations of the ROK forces were clearing operations, not U.S.-style search and destroy missions. As U.S. observers highly praised, the ROK forces achieved notable success in these operations, largely due to small-unit tactics such as reconnaissance and ambushes. This unique approach holds significant meaning in the ROK's conduct of the war, as it not only contributed to the strategic goal of pacification in the Vietnam War but also fulfilled the ROK forces' internal goal of achieving maximum results with minimal casualties.

Keywords: Vietnam War, Republic of Korea Forces in Vietnam(ROKFV), Large-Scale Military Operations, Operation Oh Jac Kyo, Operation Hong Gil-dong, Search and Destroy, Clearing, Securing, Pacification

